

아라



언니 친구가 카톡 보냈는데 비트코인이 미래 화폐 될 거 같대 ㅋㅋ

일론 머스크가 자꾸 에너지 화폐 얘기하길래 진짜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고

주아



오 박종훈 강사님 Q&A에서 그 질문 풀어주셨어!

정확하게 같은 질문이 많이 들어왔대

아라



헐 진짜? 답이 뭐야

주아



결론부터 말하면 비트코인은 에너지 화폐 자격 미달이야

오후 8:30

아라



엥 왜? 비트코인 만들 때 전기 엄청 쓰잖아

주아



그게 핵심이야. 본위제가 뭔지부터 알아야 돼

본위제(本位制) = 화폐 들고 가면 뭔가로 바꿔준다는 시스템

1971년까지는 달러 = 금 교환증이었어. 연준 가면 정해진 양의 금으로 바꿔줬거든

아라



오 진짜? 그게 금 본위제구나



주아

맞아. 닉슨이 1971년에 금태환 중단 선언하면서 금 본위제 끝났지

그럼 에너지 본위제는? 토큰 들고 가면 정해진 kWh로 바꿔주는 시스템이어야 돼

아라



근데 비트코인은?



주아

비트코인 들고 가서 전력으로 바꿔주는 보장이 없어 ㅋㅋ

에너지를 많이 쓰는 자산이지 에너지 본위제의 기축통화는 아닌 거지

아라



헐 듣고 보니 그러네

근데 일론 머스크 그게 진짜 가능하다고 보는 건가?



주아

재밌는 건 머스크가 원조가 아니야

**헨리 포드가 1921년에 이미 제안했거든**

오후 8:34

아라



헐 헨리 포드?? 그 자동차 만든 사람?

주아

○○ 그 사람. 컨베이어 벨트로 노동 본질 바꾼 사람이잖아

그래서 일찍 알아챘대 — 진짜 가치는 금이 아니라 에너지라는 거

🕒 TIME GUEST



헨리 포드

1921-12-04 → 1924

"내가 1921년 12월 4일 New York Tribune에 발표했지. 머슬숄즈 발전소 짓고 거기서 나오는 kWh를 단위로 한 새 통화. 1 트로이온스 = 35달러? 말도 안 돼. 에너지 10kWh = 1달러 이게 진짜야. 근데 이틀 뒤 NYT가 '비틀거리며 쓰러진다' 비판했고 1924년에 정치 반대로 결국 포기했어. 100년 뒤 비트코인이 같은 발상을 다른 형태로 다시 꺼내더라."

아라

와 1921년에 진짜? 시대를 너무 앞섰네

주아

○○ 100년 앞선 통찰이지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화폐관도 비슷한데 좀 더 세련된 거야

아라

어떻게 다른데?

주아

머스크는 화폐 = 자원 효율 배분 데이터베이스라고 봐

누가 더 에너지 생산·소비할 수 있는지 증명하는 게 화폐의 진짜 역할이라는 거

아라



데이터베이스로서의 화폐? 신기하다

주아



그래서 머스크한테는 모든 종이돈이 소프트 커런시아

달러도 노이즈 많대. 정부가 마구 찍어서 인플레 만든다고

아라



근데 달러는 미국 국채로 담보되는 거 아니야?

주아



그게 머스크가 보기엔 문제야

미국이 빚을 많이 질수록 더 많은 달러 찍을 수 있는 구조잖아

빚이 통화를 떠받치는 구조 = 가치 하락은 시간 문제

아라



오... 그래서 머스크가 화성 얘기 자꾸 하는구나

주아



ㅋㅋㅋ 맞아 그거 진짜 재밌어

'달러나 금을 화성에 가져가 봐라.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인류 문명 확장하려면 결국 에너지라는 시각이야

아라



ㅋㅋㅋㅋ 진짜 천재의 생각은 다르네



주아

그래서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에너지 회사라고 본대

솔라시티 (생산) → 메가팩 (저장) → 전기차 (소비)

에너지 생태계를 만드는 거지

아라



와 그렇게 보니까 다 연결되네



주아

근데 흥미로운 건 머스크가 사실 에디슨을 모방하고 있다는 거

아라



주아  
머스크가 사실 에디슨을 모방하고 있다는 거

에디슨? 회사 이름이 테슬라잖아?



주아

이름만 니콜라 테슬라 따라했지 ㅋㅋ

에디슨이 진짜 한 건 전구 발명이 아니야

**전력 시스템 생태계**를 처음 만든 거. 발전소 → 전선 → 가정. 그게 핵심

아라



오 그러네. 테슬라가 그걸 하고 있구나



주아

○○ 에너지 화폐 만들려고 미리 인프라 깔고 있는 거지

오후 8:45

아라



근데 화폐의 3대 기능이 있잖아?

에너지가 다 충족할 수 있어?



주아

좋은 질문이야. 가치 척도 / 교환 매개 / 가치 저장 — 이 세 가지

헨리 포드 시대엔 두 가지가 안 됐어

**교환 매개**: 에너지가 전선 따라 흐르면서 손실됐거든. 가치를 정확히 옮길 수가 없었어

**가치 저장**: 전력 장기 저장도 어려웠고

아라



근데 21세기엔 다르겠지?



주아

○○ 블록체인이 나오면서 풍경이 바뀌었어

실물 에너지는 전력망에 두고 소유권만 토큰으로 거래하면 돼

거래 비용도 손실도 거의 없어. 교환 매개 해결

아라



오 진짜? 가치 저장은?

주아



ESS — Energy Storage System이 발전해서 부분적으로 가능해졌어

헨리 포드가 100년 전에 못 풀었던 두 문제가 이제 풀리기 시작한 거지

❤️ 1

아라



와 진짜 시대가 변하네

그럼 가치 저장은 진짜 가능해진 거야?

주아



아 이게 여전히 한계가 있어

**엔트로피 법칙** 들어봤어? 자연의 법칙이야

쉽게 말하면 에너지는 새어나가

아라



엥 새어 나간다고?



주아

○○ 배터리도 시간 지나면 저장 에너지 줄어들잖아

수소? 분자가 너무 작아서 저장해도 누출돼

석유? 저장은 가능한데 탈탄소 분위기라 시대적 가치 새어 나가는 중

아라



헐 그럼 금만 안 새어 나가는 거네



주아

정답! 금은 영원해. 5천 년 전 이집트 무덤의 황금도 지금이랑 같은 질량이라

그래서 가치 저장은 여전히 금이 압도적 우위인 거지

아라



근데 그럼 일론 머스크 말이 맞을 일이 없겠네?



주아

근데 강사님이 그래도 머스크 말 맞을 가능성 있대

아라



왜?



주아

**미·중 패권 분리** 때문이야

1980년대 미·소 냉전 때 미국은 달러, 소련은 루블화 썼잖아

진영 간 거래에서 한쪽 통화로 합의 안 됐어

아라



오... 그럼 미·중 시대도 같은 구조?



주아

○○ 달러로도 위안화로도 합의 어려워

**진영 넘나드는 표준 통화**가 필요해지는데

금은 이동·증서 신뢰가 어려워서, 거기서 에너지가 후보로 들어오는 거지

오후 8:55

아라



오 그렇구나. 그래서 향후 통화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 거야?

주아

**4분화**될 가능성이 크대

1) 금 — 장기 가치 저장. 4천 년 통한 유일한 길

2) 종이돈 (달러·유로·위안·원) — 국내·우방 간 거래

3) CBDC·스테이블 코인 — 종이돈의 디지털 진화

4) 에너지 — 국가·진영 간 거래 (가능성)

아라

와 한 가지가 아니라 네 층이네

주아

근데 이게 사실 노멀이래

**4천 년 통화 역사 중 단일 기축통화 시대는 영국 파운드 → 미국 달러로 약 300년뿐**

아라

헐 그렇게 우리는 너무 익숙해진 거구나

주아

○○ 대항해 시대만 봐도 통화 세 층이었어

금 (왕실 금고의 가치 저장) + 은 (실제 무역 표준 통화) + 동 (서민 일상)

격언이 남아 있대 — '금으로 저장하고 장사는 은으로 한다'

아라



오 21세기에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네

주아



응 금이 가치 저장, 에너지가 진영 간, 종이돈·CBDC가 일상  
— 3층 재현 가능성

아라



오케이 Q1은 이해했어

근데 두 번째 질문은 뭐였어?

주아



이게 더 실용적이야

**달러 패권이 흔들리면 미국 주식 보유자는 안전한가**

아라



헐 그거 중요하지

회사 동기가 미국 주식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데

달러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주아



통념이 그렇지. 근데 강사님이 정반대 답을 했어

베네수엘라 사례를 먼저 봐 봐

아라



베네수엘라? 경제 박살난 나라잖아



주아

○○. 근데 주가는 어떻게 됐는지 알아?

2022년 1월 5,300 포인트 → 2025년 7월 53만 → 강의 시점 600만 (화폐 개혁 전)

아라



엥?? 100배?



주아

ㅋㅋ 더 봐

베네수엘라 IBC 주가 지수

**1,000 배**

2022년 5,300 → 2026년 강의 시점 600만. 3년 반 만에 1,000배. 같은 기간 볼리바르 가치는 105분의 1 토막.

아라



와 미쳤다

근데 통화가 105분의 1 토막인데 주가가 1,000배? 어떻게 이게 가능해?



주아

정직한 곡선이야. 통화가 떨어진 만큼 주가가 정직하게 올라간 거

사람들이 '종이돈은 휴지다' 인식하니까 실물·주식으로 자산 옮긴 거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래

2026년 5월 기준 IBC 1년 비교 +2,283.95%. 베네수엘라 인플레 649%, IMF 추정 682% 세계 최고

아라



헐 우리 라떼 7,000원짜리가 6년 만에 7만원 되는 거랑 비슷한 거네



주아

ㅋㅋㅋ 비슷해. 그런데 메커니즘이 있어

강사님이 본 강의에서 풀어주신 거 — **Catastrophic Boom 3대 고리**

1) 국가 부채 늪 — 정부 국채 발행 → 중앙은행 직매입

2) 돈 풀기 + 돈 뿌리기 — 연준 양적완화 + 정부 재정 적자

3) 막대한 신용 창출 — 자산 시장 전체 부풀어 오름

이 고리가 깨지지 않는 한 화폐 몰락만큼 자산은 동반 상승

아라



그럼 진짜 미국도 베네수엘라처럼?

주아



근데 여기서 강사님이 결정적인 차이를 짚어

**미국은 베네수엘라와 차원이 완전히 달라**

베네수엘라의 멀쩡한 기업 아예 없는데도 주가가 1,000배 올랐잖아

그 얘기는 돈만 풀리면 엉터리 기업만 있어도 주가가 오른다는 뜻이야

아라



오... 미국 빅테크는 그게 아닌 거구나

주아



정답! 빅테크 경쟁력은 비교가 안 되지

더 결정적인 건 **글로벌 영업 비중**이야

애플·구글·아마존은 영업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함

아라



오 그럼 달러 약세면 빅테크 영업이익은?



주아

**오히려 급증해!** 유럽에서 유로화로 받은 매출을 달러로 환산하면 그만큼 늘잖아

결론은 단순 — 달러 가치 급락 시 미국 주식 = 달러 몰락 헷지 수단

아라



헐 강사님 시각이 완전 반대네

통념 = 달러 떨어지면 미국 주식도 위험. 강사님 = 달러 떨어지면 미국 주식이 헷지



주아

○○. 근데 강사님이 또 짚어 — '오해 방지'

**달러 몰락은 금 대비**지 다른 종이돈 대비 몰락이 아니야

아라



헐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주아

주요 중앙은행 자산 / GDP 비율 봐 봐

**Fed 21.45% / ECB 39% / PBoC 35% / BoJ 105%+**

Fed가 가장 적게 찍었어. BoJ는 4배 이상 차이 ㅋㅋ

아라



헐 진짜?? 일본이 그렇게 많이 찍었어??



주아

○○. 그래서 엔화가 계속 추락하는 거지

최신 자료 보면 BoJ는 한 분기 사이 QT 진행해서 90%+ 수준으로 약간 내려옴

그래도 4대 중앙은행 중 최고 비율은 그대로

아라



오 그럼 종이돈끼리 비교하면 달러가 여전히 짱이네



주아

정답! 달러 vs 엔화 / 위안화 / 유로화 — 모두 달러 우위

아라



근데 그럼 원화는 어떻게 돼?



주아

여기서 강사님이 좀 무서운 얘기를 해

**아베노믹스 평행이론**

아라



그게 뭐야?



주아

달러/엔 환율 봐. 2012년 76엔 → 2026년 157엔

14년 만에 엔화 절반 토막

아라



헐 그게 한국 원화로 환산하면 어떻게 돼?

주아



1,450원이던 환율이 3,000원 된 충격이랑 같아

아라



와 라떼 14,000원 시대 ㅋㅋㅋ

주아



ㅋㅋㅋ 근데 그게 농담이 아니라

원인이 아베노믹스 세 화살 - 돈 찍기 + 재정 적자 + 구조조정

그리고 한국 현재 정책이 그걸 닮은 걸을 보인데

아라



엥 진짜?

주아



한국은행이 통화량 늘리는데 통계까지 바뀌어서 '돈 안 찍었다' 주장

정부 재정 적자도 가파르게

**세 화살 중 두 화살은 이미 닮아 있고, 결과도 비슷한 방향일 가능성**

아라



헐 한국도 그렇게 되는 거야?

주아

사실 일본보다 더 안 좋을 수도 있대

**일본은 G2까지 갔던 나라, 한국은 G9이었던 나라**

같은 정책 결과 한국 원화가 더 약해질 가능성이 큰 거지

아라

와... 그럼 원화는 어쩌라고?

주아

강사님 결론 — 원화는 위로 열려 있지 아래로 열려 있지  
않아

달러 자산 일부 편입이 한국 투자자에게 중요한 포트폴리오  
전략이래

아라

근데 진짜 위험한 신호는 따로 있는 거 아니야?

달러 몰락이 진짜 신호가 아니라고 했잖아

주아

맞아 그게 핵심

**달러 몰락 자체는 미국 주가 위험 신호 X**

진짜 신호는 미국이 달러 가치를 지키려고 태도를 바꿀 때

아라

오... 어떤 신호?

주아

강사님이 3대 신호 짚었어

1) 긴축 재정으로 빚 갚기 — '왜 하필 내가' 심리라 가능성 거의 없음

2) 금리 인상으로 물가 잡기 — 2026년말 가능성

3) **시장 금리 자체 상승** — 이미 진행 중

아라

오 세 번째가 진행 중이라고?

주아

○○. 작년 9월부터 연준이 기준 금리 계속 내렸는데  
**10년물 국채 금리는 거꾸로 올랐어**

강의 시점에 4.15%였대

아라

지금은 얼마야?

주아

**2026년 5월 8일 기준 4.38%** — 약 4개월 만에 +23bp 올랐어

강사님이 경계선 4.5% 명시했는데 **12bp만 더 오르면 진입**

아라

헐 진짜 빨간불 직전이네



주아

○○. 위기 5.0%까지 62bp 여유

연준이 기준 금리 계속 내려도 10년물 안 멈춤

= 정부와 AI 채권을 시장이 의심하기 시작한 신호야

강의가 짚은 모니터링 신호 3가지

- 01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 4.5% 경계 / 5.0% 위기 단계 (강의 § 13 명시). 정부·연준 의지와 무관한 시장 신호.
- 02 달러 vs 종이돈 격차 관찰**  
 — Fed 21% vs BoJ 90%+ vs PBoC 35%. 달러 몰락은 금 대비이지 다른 종이돈 대비가 아님.
- 03 빅테크 글로벌 영업 비중**  
 — 달러 약세 시 영업이익 ↑. 미국 주식은 달러 몰락 헷지 수단 (강의 § 10 명시).

아라



오 정리되네. 뭘 사다가 아니라 '예의주시'가 걸이구나



주아

정답! 강사님은 모니터링이지 행동 권유 X

본 강의 1년 커리큘럼에서 차근차근 풀어주신대

아라



통화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게 핵심 걸이네



주아

○○. 다음은 다극화·다층화된 통화 시스템

그 전환기에 금 + 미국 주식이 종이돈 몰락 헷지 두 축이고

10년물이 진짜 신호를 가장 정직하게 보내는 시점이래

아라



와 첫 Q&A부터 너무 풍부했네



주아

ㅋㅋ 두 질문이지만 너무 깊었어

다음 강 올라오면 또 풀어줄게~

본 콘텐츠는 강의 정리 목적이며 특정 자산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외부 자료(+1~+4)는 강의 시점 이후의 정량 변화와 사례 후속을 보장합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